

기록적인 폭염과 극한 기상 계속됨

2026.8.12일자

7월과 8월 초 기후 상태는 기록적인 육지와 해수면 온도, 폭염, 가뭄, 산불, 홍수로 규정된다.



북반구 많은 국가에서 여름철 대표적인 특징으로 극심한 폭염, 지속되는 가뭄, 위험한 산불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남반구는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고영향 기상 및 기후 현상들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연쇄적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고 시의적절한 예측과 조기 경보, 그리고 WMO 공동체가 제공하는 모니터링 및 정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26년 7월은 2024년 7월과 함께 관측 사상 가장 따뜻한 7월이었다.

NOAA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후학적으로 7월은 일 년 중 가장 따뜻한 달입니다. 2026년 7월과 2024년 7월은 1850년 이후 전 지구적으로 관측된 가장 따뜻한 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Notable Weather and Climate Events: July 2026



2026년 7월 주요 기후 편차 및 현상 지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가 운영하고 있는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는 2026년 7월이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따뜻한 7월이며, 평균 지표면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 보다 1.47°C 높다고 밝혔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및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모두 전 세계 해수면 온도는 7월 기준으로 관측 사상 가장 높다고 전했다.

각 데이터세트는 전지구 평균 지표면 부근 기온을 산정하기 위해 서로 조금씩 다른 계산 방법을 사용한다. WMO는 전지구 기후현황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6개의 데이터세트를 종합하여 사용한다.

개별 월의 순위 자체는 장기적 추세보다는 중요도가 낮다.

관측 이래 가장 따뜻했던 10개의 7월은 모두 2016년 이후에 나타났고, 최근 4년 (2023~2026년)이 상위 4개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NOAA의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가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7월을 경험했다.

서유럽은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6-7월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8월에도 계속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5월 이후 네 번째 폭염을 겪고 있다. 폭염과 극도로 낮은 토양 수분, 가뭄 때문에 생태계, 농업, 하천 수위, 교통, 에너지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동시에 산불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8월 10일이 포함된 주간에 프랑스 거의 전역에서 극도로 높은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많은 곳에서 35°C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 기상청 역시 해당 주 후반에 35°C 이상 기온에 대한 3단계 황색 경보를 발령했고, 영국 기상청은 8월 13일까지 잉글랜드 남부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36°C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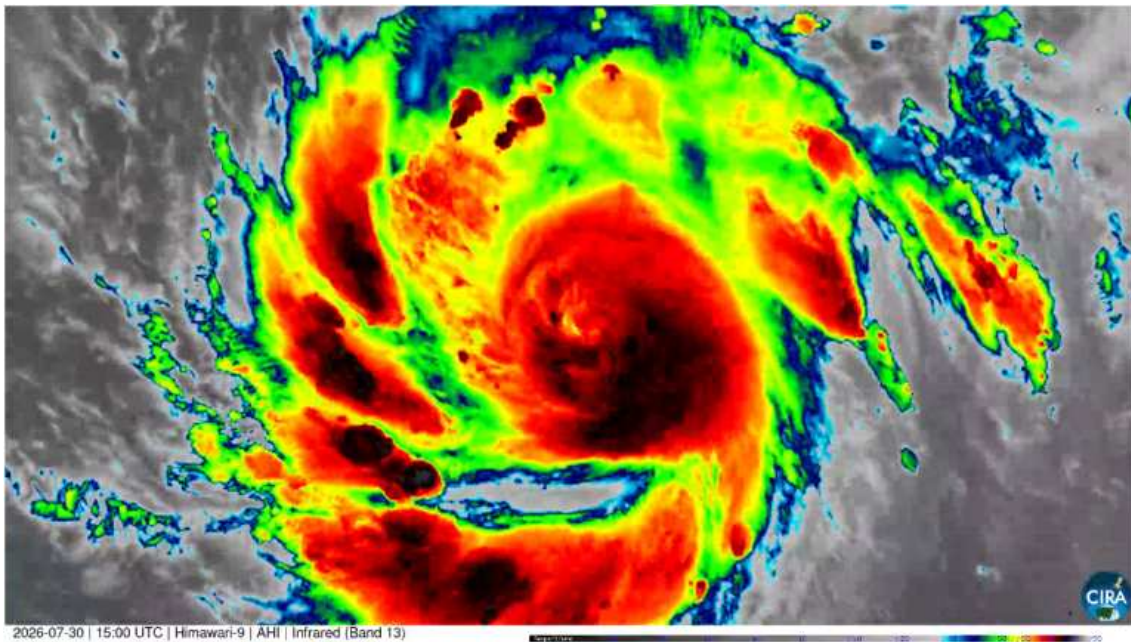
중부 유럽과 발칸 지역에서는 8월 첫째 주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에서 역대 최고 관측소 기록을 경신했다.

일본과 한국 역시 8월 첫째 주에 이례적이고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했고, 아시아와 중동,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인도주의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WMO 조정 메커니즘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몬순과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

WMO는 8월 6일 인도주의 기관을 대상으로 발간하는 주간 전지구 수문기상 스캔 (weekly Global Hydromet Scan)을 통해 이번 주 인도 북동부 및 서부, 파키스탄 동부,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미얀마,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은 강한 호우에서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호우가 발생하여 돌발홍수와 산사태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에서는 몬순 홍수로 수십 명이 사망했다. 인도 기상청은 해당 주간에 인도 중부 및 북서부 지역에서 극도로 강한 홍수가 발생하고, 히말라야 북부 전역에서도 추가적으로 강한 강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8월 12일경에는 벵골만 상공에 새로운 저기압 영역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라 인도 동부 해안에 강한 강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CSU/CIRA & NOAA

중국은 8월 7일 태풍 돌핀(이번 시즌의 13번째 태풍으로 이례적으로 장기간 지속됨)이 상륙하기 전에 대규모 대피를 포함한 비상관리 및 대응 활동을 실시했다. 중국 기상청은 강풍, 집중호우, 연안 및 내륙 홍수의 위험성에 대해 다수의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장기적인 온난화와 함께 북반구 전역에 걸쳐 이어지는 고기압과 저기압 시스템의 지속적인 교대 패턴이 결합된 결과입니다”라고 WMO 기후정보 책임자인 존 케네디가 설명했다. “고기압 영역은 일반적으로 높은 기온과 건조한 조건과 연관되어 있으며, 저기압 영역은 더 서늘하고 습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고기압 패턴은 며칠 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올해 목격한 것처럼 몇 주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6월에는 이러한 고기압 영역과 이에 수반되는 높은 기온이 중앙아시아, 북미, 서유럽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

습니다. 7월과 8월 초에는 대략 비슷한 지역들이 영향을 받았고, 동아시아의 일부 지역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7월: 극한 현상의 달

7월에는 극지방 이외의 해양 전체에서 7월 기준 관측 사상 가장 높은 해수면 온도가 나타났다.

엘니뇨 조건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 엘니뇨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인 열대 태평양의 넓은 지역에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이 나타났다. 유럽 주변에서는 대서양과 서부 지중해의 기록적인 높은 해수면 온도와 광범위한 강한/심각한 해양 폭염이 연관되어 나타나 연안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서유럽에서는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었다. 또한 이 지역 대부분에서는 3월부터 6월 사이에 관찰되던 광범위한 건조 상태가 지속되고 더욱 심화 되었으며,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일부 지역 및 영국, 그리고 동쪽 일부 지역에서도 극도로 낮은 강수량 또는 토양 수분이 보고되었다.

건조한 지역 전반에 걸쳐 하천 유량은 평년보다 훨씬 낮거나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세느강, 라인강, 다뉴브강이 특히 큰 영향을 받아 여러 나라에 걸쳐 용수 공급, 관개, 에너지에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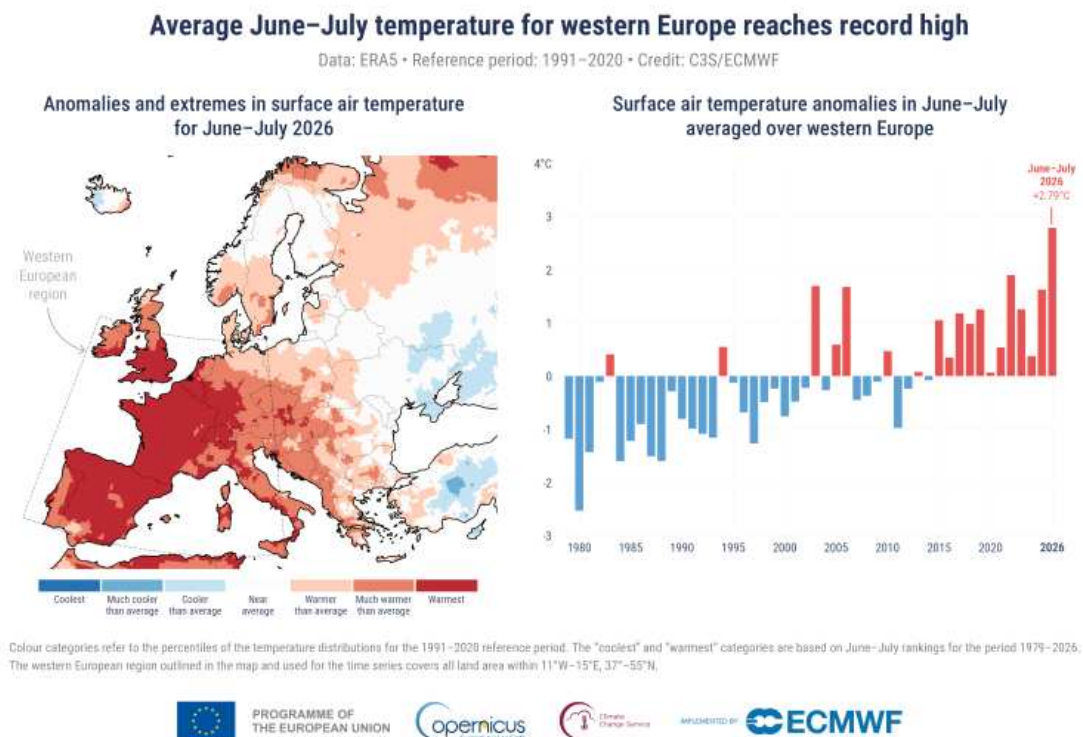
그러나 2026년 7월 유럽 육지 지역의 평균 기온은 관측 이래 해당 월인 7월을 기준으로 11번째로 높았을 뿐이다. 이는 동유럽 대부분 지역과 스칸디나비아에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알래스카, 유럽 북부 및 동부, 남극 대부분 지역, 캐나다 최북단, 남아메리카 남단, 그리고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관측되었다.

유럽 이외의 지역 중 캐나다 북부 일부 지역, 미국 중부, 마그레브 지역,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일부, 시베리아, 남중앙아시아, 중국 내륙 일부 지역,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 우루과이, 볼리비아 및 브라질은 평년보다 건조하였다.

반면, 미국 동부 지역의 일부, 멕시코 북부, 알래스카 및 캐나다, 러시아 동부, 아프가니스탄, 인도 아대륙 일부 지역, 중국 동부와 일본, 칠레, 브라질 남부는 평년보다 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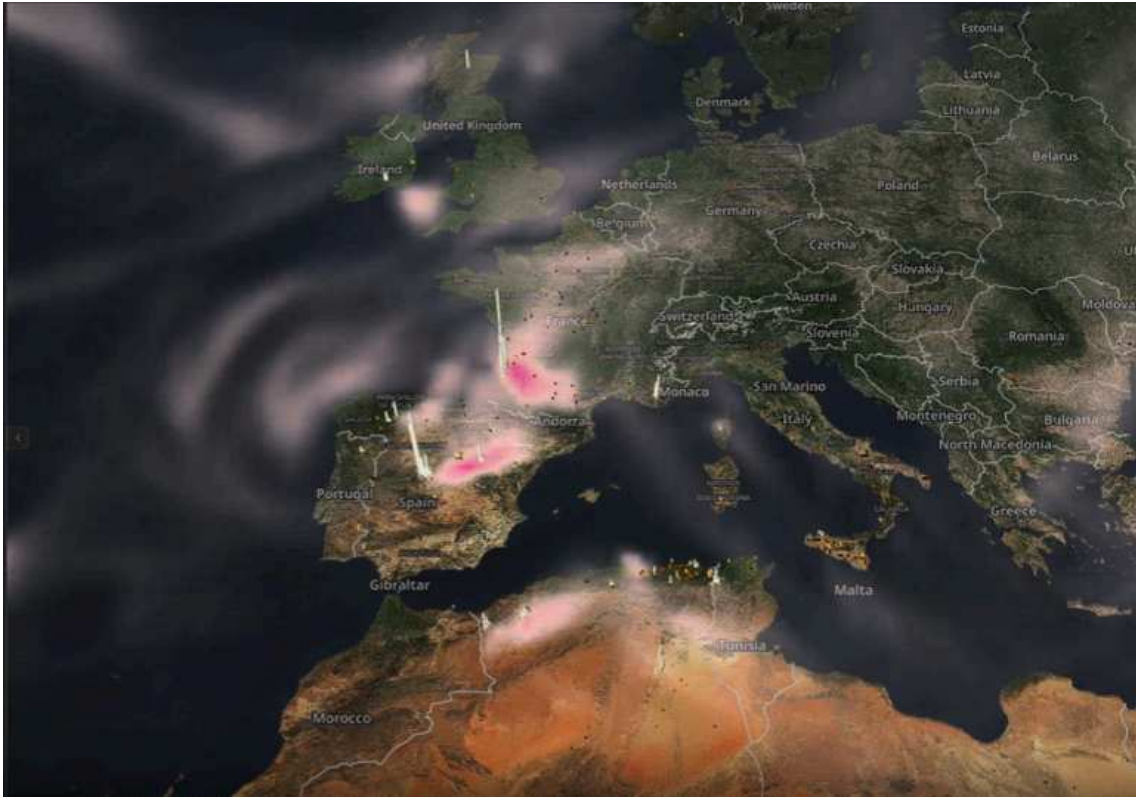
장기간 계속된 몬순 강수로 인해 방글라데시에서는 심각한 홍수가 발생하였으며, 대규모 난민 캠프가 위치한 콕스바자르(Cox's Bazar)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아프가니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돌발홍수가 발생했다. 중국은 7월 말 태풍 놀(Noul) 이후 심각한 홍수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70만명이 대피하였다. 한국 역시 7월 말 연이은 홍수로 피해를 입었다.



C3S/ECMWF

산불

7월에는 서유럽 전역에서 불에 탄 면적과 배출량의 측면에서 모두 이례적인 산불이 발생하였다.



산불 배출량 감시 앱

코페르니쿠스 대기감시서비스(CAMS)가 제공하는 산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까지 프랑스의 산불 배출량은 2023년과 2022년 극심한 산불이 발생한 연도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며, 지난 24년 동안 가장 극심한 산불이 발생한 연도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자료 역시 이 시기에 평년보다 산불 배출량이 훨씬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현재 미국 서부 일부 지역에서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현재 591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며, 그 중 43건은 통제 불능 상태로 분류되고 있다고 캐나다 산불 정보 시스템은 밝혔다.